

# 『로동신문』 현지도 사진을 통한 북한 경관의 시각 체제 연구\*

안진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조경학 박사

## I. 서론

이 논문은 북한 『로동신문』의 현지도 사진에 구축된 경관을 보는 방식(way of seeing)<sup>1)</sup>에 주목한다. 현지도 사진은 '현장에 대한 지도자의 직접 지도'라는 북한 고유의 통치 체계가 시각화된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생산된 현지도 사진은 분단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북한의 내부 동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연속적인 창과도 같다. 현지도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시각화하는 『로동신문』은 지도자의 존재를 중심 삼아 현장의 의미를 변환시키는 북한의 사회상을 잘 보여준다. 사진에서 지도자는 현지도 대상을 응시하거나, 이를 배경으로 뒤편으로써 독자에게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봐야 하는지 지시한다. 지도자의 모습과 함께 그가 보고 지시한 것을 시각화하는 현지도 사진은 북한의 경관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지도자와 경관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현지도 사진은 통치의 목적을 포함한다. 동시에 지도자가 가진 권위만큼의 주목성과 효과를 지닌 북한 고유의 '시각 체제'(scopic regime)<sup>2)</sup>라 할 수 있다. 시각 체제는 대상을 비추는 방식 또는 대상을 보는 방식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대상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게 만드는 시각적 합리화의 방식을 의미한다. 지도자의 이동을 따라 재구성된 『로동신문』의 현지도 사진은 경관을 보는 방식을 규정하며, 이 시각 체제는 『로동신문』의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보고 있다고 인식하도록 의도된 시각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 논문은 이 시각적 장치가 현지도가 이뤄진 경관의 종류, 이에 대한 지도자의 시선과 태도, 그리고 경관에서 강조되는 측면으로 이뤄진다고 본다. 이 시각적 장치는 이들의 합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수만큼의 시각 체제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 체제는 김일성 집권 시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은 긴 시간 동안 지속된 경관의 시각 체제를 시각적 장치에 따라 분석하고, 시기별로 시각적 장치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시각 체제의 구성을 통해 북한의 정치적 경관을 해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 II. 연구 방법

이 논문은 '현지도'란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195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로동신문』의 현지도 기사를 살펴보고, 사진을 구성하는 '경관의 종류', '지도자의 시선과 태도', '경관에서 강조된 측면'에 따라 현지도 사진을 분류했다.

### 1. 현지도 경관의 종류

현지도는 북한의 산업, 문화, 생활상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논문은 박영정 외(2002), 이석기와 이승엽(2014), 홍민(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지도를 통해 볼 수 있는 경관의 종류를 공장/기업소, 농축수산, 에너지, 교통, 문화교양, 교육/보건/보육, 과학/연구, 상업/편의봉사, 유희/오락/관광, 체육, 주거/건설/토목과 같은 산업 및 시설 부문으로 분류했다. 다음으로 『로동신문』의 현지도 기사 검토를 통해 각 부문에 해당하는 경관의 종류를 세부 분류했다.

### 2. 경관에 대한 시선과 태도

『로동신문』이 보도하는 현지도 사진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의 하나로, 현지도가 일어나는 경관과 이에 대한 지도자의 시선 또는 태도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진의 구도와 기사 내 사진의 배치 방식을 토대로, 현지도 사진에서 나타나는 경관의 유형을 지도자의 '배경' 또는 지도자가 '응시하는 대상'으로 분류했다.

### 3. 경관에서 강조되는 측면

현지도 사진을 통해 볼 수 있는 경관의 공통된 특징은 경관의 종류 또는 현지도의 내용에 따라 경관의 강조되는 측면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각종 시설과 건축물의 모습 및 규모가 파악 가능하도록 경관의 내부 또는 외부 전체가 강조된다. 둘째, 설비 또는 생산물, 건축

\*: 이 논문은 201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로동신문』 현지도 사진을 통한 북한 경관의 시각 체제 연구』의 일부임.

물 내 시설의 일부가 강조된다. 셋째, 경관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 조감도가 강조된다. 넷째, 기념 조형물, 현지지도 교시판과 같이 당 체제 또는 지도자의 현지지도를 기념하는 경관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현지지도 대상이 강조되기보다 수목, 시설의 극히 일부 또는 건축물 벽의 일부, 하늘 등과 같이 경관이 위치한 지역, 종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이 강조된다. 경관에서 강조되는 측면은 현지지도 과정에서 지도자의 응시 대상 또는 배경에 위치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연계되는 공통점을 지닌다.

### III. 연구 내용 및 결과

김일성 집권 시기의 대표적인 경관은 김정일의 건설 분야 사업에 의해 대형화된 기념비적 경관, 그리고 김일성의 지도 활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공업과 교육/보건/보육 분야의 경관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의 경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김일성 집권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념 조형물과는 별개로, 특정 산업과 시설의 규모를 통해 지도자의 현지지도를 업적으로서 부각시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수의 현지지도 사진에서 김정일은 경관을 배경으로 활용하기보다 응시하고 있다. 김정일의 응시 대상 중에서 조감도를 다수 볼 수 있다. 조감도는 대규모의 경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만,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경관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지도자의 업적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키는 경관으로는 부적합하다. 현지지도 사진에서 김정일의 배경이 된 경관은 수목, 하늘, 건축물과 시설 내부의 일부 등이다. 회화, 채색상, 현지지도 사진에서 공통적으로 김정일의 배경은 지도자의 업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 경관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그 대신 김일성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념비적 경관이 다수 건설되었다.

김정은 집권 시기 이후에는 인터넷이 선전 방식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신문은 컴퓨터 파일로 배포되며, 현지지도 사진은 즉각 전달된다. 또한 북한의 배경막 문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은 백두산과 삼지연, 김정일은 거친 파도 그림을 주요 배경막으로 활용했는데, 여기서 배경막에 재현된 경관은 지도자의 업적을 상징했다. 김정은의 업적을 상징하는 배경막이 아직 부재하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김정일의 현지지도와 비교하여 향후 김정은의 배경막이 될 경관과 그 특징을 유추해 보고자 했다.

김정은 집권 시기에 현지지도가 이뤄진 경관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기념비적 경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로동신문』과 사진이 거의 실시간적 속도를 띠게 된 시대적 상황, 김정은 집권 시기에 들어 높은 비율을 보이는 대형화된 경관에 대한 현지지도, 그리고 지도자가 현지지도 사진에서 대부분의 경관을 배경으로 촬영한 것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김일성 집권 시기의 경우, 기념 조형물이 다수 건설되는 동시에 지도자의 업

적을 강조하는 경관은 특정 산업 및 시설 부문과 연계됨으로써 양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김정일 집권 시기에는 김일성의 기념비적 경관을 답습하는 한편, 자신의 업적을 강조할 수 있는 특정 산업 및 시설 부문의 경관과는 연계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전의 두 지도자들과 대조적으로, 김정은 집권 시기에는 지도자의 이동이 곧 기념비적 경관의 생산으로 직결되었다. 기념 조형물을 만드는 대신 경제 산업, 생활, 교육, 유희, 상업, 주거 전반의 현지지도에서 대형화된 경관 앞에 섬으로써 경관은 지도자의 업적을 강조하는 동시에 즉각적인 기념비가 되었다.

### IV. 결론

경관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북한의 정치적 경관을 읽어낼 수 있다. 『로동신문』의 현지지도 사진은 경관이 물리적 속성에서 매체의 성격으로 전환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두 가지 측면의 '이동'을 통해 가속화되었다. 첫째, 사진 프레임을 중심으로 본 이동 주체의 변화다. 과거 경관이 있는 북한 전역으로 '지도자가 이동'했던 반면, 특정 지역에 편중된 다층적이고 대형화된 경관에 대한 현지지도는 지도자가 있는 사진 프레임으로 '경관이 이동'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시각 매체를 통해 경관이 이동하는 속도의 증가다. 종이 신문이라는 사물에서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에 위치하게 된 경관은 현지지도를 통한 통치 체계의 확산 속도를 높인다. 북한의 정치적 경관은 사진 프레임에 고정된 지도자와 그 배경이 실시간으로 변환되는 구조의 모빌리티라는 특성을 지닌다.

- 주 1. '보는 방식'이란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환경과의 상상적 관계를 통해 어떻게 그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Cosgrove, 1985: 45-62).
- 주 2. 프랑스 영화학자 크리스티안 메츠(Christian Metz)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그에 따르면 영화를 관람하는 행위는 영화관이라는 물질적·제도적 배치에 의해 구조화되며, 관람자를 주체(subject)로 구성한다(Metz, 1982: 61-66).

### 참고문헌

1. 『로동신문』 (1955년 4월 10일-2018년 7월 10일)
2. 박영정 외(2002) 북한의 문화시설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3. 이승엽, 이석기(2014) 2000년대 북한기업 현황: 북한 공식매체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산업연구원.
4. 홍민(2014)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북한경제리뷰 16: 35-62.
5. Cosgrove, D.(1985) Prospect, perspective and the evolution of the landscape idea.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0(1): 45-62.
6. Metz, C.(1977) Le Signifiant Imaginaire: Psychanalyse et Cinema. Paris: Union generale d'Editions. Celia Britto, trans.(1982c). The Imaginary Signifier: Psychoanalysis and the Cinem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